



광남일보



광주 세계양궁대회 자원봉사단 출범
통역·안전·운영 등 배치...시민 외교관 역할

3



광주경충,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수행...산재 예방 집중

7



고흥물, 누적 매출 90억...역대 최대 실적
'외부 온라인을 연계' 유통 채널 다변화

9



더 맛있어진 '해남8미'로 미식 관광
닭 코스요리·보리쌈밥 등 지역 특색 담아

10

조간 제7902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음력 6월 19일)

광주 도심 백화점 '폭발물 테러' 협박 신고

폭발물 발견 안돼...경찰력 낭비에 시민 불안

전국에서 허위 폭발물 테러 협박이 빗발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다행히 폭발물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허위 테러 글로 경찰을 투입해 대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전 9시40분께 '고성능 폭탄을 입수했다. 서울 중구와 압구정에 위치한 백화점,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 등 5곳에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이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폭파 시점에 대해서는 "9~10일 사이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트리겠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청은 서구 신세계백화점과 동구 롯데백화점 등에 경찰 수색진 2마리, 경찰특공대, 기동대 등 50여명을 긴급 투입해 폭발물을 수색했다. 또 기존 백화점 개장 시간을 미루고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해당 백화점은 모두 개점 전이라 일반 고객은 없었다.

소방당국도 현장에서 수색 추이를 살피며 대응에 나섰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수색은 이날 오후 12시25분 종료됐고, 그 결과 폭발물 설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보다 늦게 개장하게 된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은 오후 12시40분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두 백화점은 허위 신고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액 규모를 추산하고, 경찰의 협박범 수사 상황 등에 맞춰 후속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허위 폭탄 협박 신고가 남발하면서 일선 경찰관·시민들의 피로감



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특공대가 출동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동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롯데·신세계 백화점에 경찰특공대 투입...직원들 대피

개장시간 2시간 넘게 지연...치안 공백·시민 불편 야기

가중과 치안력 낭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원을 보러 온 시민 수천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특공대 등 57명과 소방관 7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약 1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올린 중학생(1년)이 글을 올린 다음 날인 6일 제주에서 검거됐고,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20대도 경남 하동에서 붙잡혔다. 당시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약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30분 동안 백화점을 수색했다. 이 같은

허위 신고에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 발생 우려는 물론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행동이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데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투입되면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공중협박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 위협 행위 없이 단순 허위 글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공재 윤두서-세마도

공재 윤두서 '세마도' 321년 만에 최초 공개

이달 개막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서

조선 후기 대표 수묵화가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 진본이 321년 만에 최초로 일반인에게 전면 전시된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30일 개막하는 제4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서 '세마도' 진본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마도'는 현존하는 말 그림 중 제작 연대가 기록된 기년작(記年作)이자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왼쪽 상단에는 '갑신유월일제(甲申六月日製)'라고 쓰여 37세(1704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말 그림의 초기 기량을 가늠할 기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말을 매어두고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두 명의 관리와 강에서 말을 목욕시키는 마부를 소재로 한 그림은 현존하는 공재의 말 그림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오른쪽 상단에는 '공제지기(恭齋之記)'라는 주문인(朱文印)이 찍혀 있으며, 왼쪽 관서 밑에는 '청구자(靑丘子)'와 '효언(孝彦·윤두서의 자)'이 날인돼 있다.

하단부 중앙에 위치한 바위 표현은 조선 중기 절파화풍을 계승했지만 소재와 필치는 중기 화가들이 그린 말 그림과 전혀 다른 중국풍의 세마도 유형이다.

인물은 정밀하고 자세하게 표현됐다. 강가에서 쉬고 있는 관리들, 나무에 매어진 말들, 강에서 마부가 말을 씻는 장면 등 세 그룹으로 따로 떨어진 요소가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돼 있다. 이른 시기에 시도한 말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말의 근골이 잘 표현됐으며, 볼 뼈가 주머니처럼 볼록 튀어나온 모양은 윤두서 말 그림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세마도'는 그동안 학계 논문이나 도록에서 일부 이미지만 소개되며, 보존 상태조차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수묵 회화다. 이번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 공개를 통해 학술계·미술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윤재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은 "이번 전시를 통해 수묵비엔날레가 수묵 예술의 철학과 문화적 깊이를 재조명하고 지역민과 예술인, 관람객이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李정부, 8·15 특사에 조국 부부 등 83만여명

박우량 전 신안군수도 사면·복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관련기사 3·4·7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윤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

함됐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도 형선고실효와 복권을 받았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을 비롯해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지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



조국



박우량

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됐다.

자녀 임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 전 대표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에 나서게 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사면 대상이 됐다.

박우량 전 군수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돼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